



## 승촌보 인근 '승촌공원' 문화·예술공간 재탄생 가능할까

광주시, 372억 규모 빛고을 수상공연장 등 '승촌섬' 구상  
Y프로젝트 연계 상품 개발...영산강 예술관광 거점 목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포함 불구 국비 확보 불투명

광주시가 승촌보 인근 승촌공원에 '빛고을 수상공연장'을 조성,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시는 빛고을 수상공연장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 포함된 만큼 강원도 춘천 남이섬 같은 '광주의 승촌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지만 국비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총 372억원(국비 180억원·시비 180억원)을 들여 승촌공원에 '빛고을 수상공연장'을 핵심 시설로 '승촌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승촌공원의 경우 사전에 이용자 센터, 인근 캠핑장 이용 공간이 시설의 전부를 그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왔다.

광주시는 주변 지역인 나주 등과의 연계를 통해 남서권 북부지역 관광객 체류 시간 증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나섰다.

특히 정부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 포함된 '빛고을 수상공연장'이 광주 시민선 8기 핵심 사업인 Y프로젝트와도 연계돼 있는 만큼 영산강 수변 문화시설과 함께 역사·자연·예술 등을 콘텐츠로 한 관광상품 개발로 영산강 예술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빛고을 수상공연장이 들어설 공터에는 강변가요제, 영화제, 콘서트 등 물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 극장을 통해 사회·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장할 계획이다.

기존 캠핑장은 '캠프존'으로 확대한다. 오토캠핑, 글램핑, 반려견 동반 테마 캠핑장, 프리캠핑존 등 다양한 유형의 캠핑장을 조성, 승촌의 자연 숲에서 영산강변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이른바 '달명 힐링 명소'로 재탄생시킨다는 복안이다.

또한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호텔과 근린생활시설, 남도



영산강변 승촌공원 | 광주시가 남구 승촌보 인근 영산강변 승촌공원에 '빛고을 수상공연장'을 핵심 시설로 한 '승촌섬' 조성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광주 남구 승촌공원과 승촌보 전경. /김애리 기자

문화체험단지 등과 연계, 상생을 통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시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과 동시에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

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광주시의 경우 국비가 포함된 3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설계 예산 반영 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국비가 확보되면 설계용역을 추진, 빛고을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광주시는 기획재정부 적격

성 심사가 오는 7-8월로 예정돼 있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로 기재부 심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1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광주시의 승촌섬 구

상에도 불구하고 승촌공원 활성화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콘텐츠의 문제로 판단된다"며 "지역 특성에 맞게 행사를 유치하고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넣는다면 충분히 승촌섬으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강 기자

## 지역 의대 교수 휴진 현실화...애타는 환자들

전남대병원 내일 외래 중단...'강제' 아니어서 참여 유동적  
병원측 "큰 차질 없을 것"...환자들 "진료 미뤄질까 불안"

광주 상급종합병원 외래 휴진이 현실화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병원 교수진은 오는 3일 하루 휴진한다.

이는 의대 증원 관련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등 의정 갈등이 2개월이 넘어가면서 전국 각 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그 공백을 메우며 따라 극심한 피로로 인한 체력적 한계를 호소, '주 1회 휴진'에 동참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전남대병원의 한 교수는 "현재 병원 외래 진료는 평소의 60-7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2개월 남짓 병원 진료 전반을 맡다 보니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전남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주 1회 휴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찬성률이 82.3%로 집계됨에 따라 오는 3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주 1회 휴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휴진은 '강제'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진료 과목 별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로 해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의수는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중증 수술을 포함한 수술은 휴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휴진을 위해서는 진료예약일정연기등의절차가필요한만큼 실제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규모는 가능하기 어렵다"며 "교수들이 휴진한다고 해도 응급·중증 수술 등은 이뤄지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휴진이 되면 응급·중증 수술은 이뤄지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전남대병원에서 4년째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한 환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직전에 외래에 다녀왔다. 3개월마다 병원에 가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그 안에 의정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음 외래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다"며 "하필 예약일이 금요일이라 연기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래 환자는 "상식적으로 인력이 대기 빠져나간 상태에서 사태가 길어지면 휴진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 없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환자들만 오롯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선대학교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2일 오후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주 1회 휴진'과 사직서 제출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수희 기자

## RPC 비 매입자금 상환 3개월 연장

농림부, 전남도 건의 수용

전남도는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한 2023년 미곡종합처리장(RPC) 비 매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이 반영돼 오는 6월까지였던 비 매입 자금 5천억원의 상환이 3개월간 연장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등하지 않고 일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비 매입 자금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대출상환확보를 위해 시중기보다 낮게 판매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2023년산 전남 농협의 비 매입량은 5만8천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으며 최근에는 쌀 소비가 줄어 농협미곡종합처리장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4월 17일 쌀값 안정을 위해 2023년 미곡종합처리장 비 매입자금 융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오는 6월까지에서 8월까지로 2개월 연장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 건의했다. /김재정 기자

### Today

- "지역 청년을 지역에 살게하자" 5면
- GGM1노조 민노총 가입 추진 6면
- '중앙공원 1지구' 재판 새국면 6면

광주매일신문 33 해남군

# 해남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 기업하기 좋은 해남군